

육군훈련소 법당불사에 지정기탁기금 줄 이어

통도사·목련회 등 아름다운동행으로 전달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 지정기탁기금이 줄을 잇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노비구니스님들의 모인인 '목련회'는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에게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신축 지정기탁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노비구니스님들의 모인인 '목련회(회장 명우스님)'도 법당 신축 지정기탁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 목련회장 명우스님은 "목련회 소속

비구니스님이 30년 동안 회비로 1만원, 2만원씩 냈던 기금을 군법당 신축 불사에 보시하자고 만장일치로 합의해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군법당 신축 불사에 동참해줘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이같은 자비나눔 문화가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이 군법당 신축 불사에 동참하겠다고 발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현재까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군종특별교구 지정기탁 기금으로 전달한 기부 건수는 총 22건이다. 지난 1일까지 집계된 금액만 6억 원을 넘는다.

이번 기부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있

는 사람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법당 신축 불사에 뜻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6월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연등모연을 통해 모아진 145만6000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영축총림 통도사 등 교구본사에서도 불사기금을 잇따라 전달했다. 지난 11월에는 익명의 독자가 2억 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국장단 스님들도 군교 활성화에 힘써 줄곧 솔선수범해 동참했다.

최근 논산 육군훈련소 신축불사 모연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에 대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은

군종특별교구 지정기탁 명단 (2010.01.01 ~ 12.01)

날짜	기부자	금액
2010.06.10	총무원조합 연등모연금	1,456,000원
07.19	장원사	10,000,000원
08.17	칠장사	10,000,000원
08.17	불국사	100,000,000원
08.17	교육부장 법인스님	1,000,000원
08.20	고운사	15,000,000원
08.31	송병순(개인)	1,000,000원
09.28	LA 관음사/이선(개인)	570,080원
09.30	건봉사	10,000,000원
09.30	학도암	5,000,000원
10.06	범어사	30,000,000원
10.11	흥국사	10,000,000원
11.02	무명	200,000,000원
11.02	용문사(양평)	10,000,000원
11.02	보광사(파주)	20,000,000원
11.16	법륜사	10,000,000원
11.24	국장단스님	10,000,000원
11.24	봉선사	20,000,000원
11.24	선운사	20,000,000원
12.01	목련회	100,000,000원
12.01	통도사	30,600,000원
12.01	보성사	500,000원
총계		615,126,080원

"현재까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들어온 기금을 포함해 불사비 120억원 가운데 총 50억 원을 모금했다"면서 "불교인재를 키우는 것이 열악한 현실에서 군 법당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해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호국 연무사 신축 불사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 박인택·홍다영 기자

“범패전수관 건립 추진”

제13교구본사 신임 주지 성조스님



“조실 스님 모시고, 선원과 강원 대중 스님들 외호하면서 수행·포교·기도도량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2일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로 임명된 성조스님(사진)은 “주지 소임을 맡으며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조스님은 “경남 서부에 위치한 쌍계사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서 포교와 사찰운영에 애로점이 많았다”며 “수행과 포교, 기도도량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찰운영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광객 대상 전법활동에 적극 나서고 지역불교대학도 개설할 계획이다.

성조스님은 전임 주지 상훈스님이 시작한 불교문화예술관(범패전수관) 건립불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에는 당나라에서 돌아온 진감국사가 830년 현재의 쌍계사인 옥천사에서 범패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 성조스님은 “쌍계사는 해동범패의 발상지로 불교음악이 태동한 유서깊은 도량”이라며 “범패전수관을 건립해서 불교문화의 전통을 복원하고 알리는 일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조스님은 전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백련암 주지, 흥운사 주지, 총무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 쌍계사 조실 고산스님이 총무원장 재임시절인 1999년 총무원 사서실장을 맡았다. 성조스님은 “조실 스님께서 철저히 계율을 수지하시고 후학들에게 흐트러짐 없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루도 조석예불을 빠뜨리지 않으시고 대중들보다 먼저 법당에서 108참배 후 예불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고 “본사 주지는 말사와 화합하고 본사 대중들과 함께 잘 지내야 하는 등 중단을 위해 할 일이 매우 많다”며 본사 주지로서의 역할을 당부했다.

하정은 기자 h13ab77@bulgyo.com

“지속적 교류사업 전개하자”

총무원장 스님, 유네스코 사무부총장과 환담



지난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게타추 엔기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다 유네스코 사무부총장은 “한국 불교와 유네스코가 파트너십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파리의 본부 방문시 유네스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한국불교와 공유할 수 있을 지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엔기다 사무부총장은 이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세계종교지도자포럼에 유

네스코가 도움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석한 김광조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장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한국불교계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기술이 취약한 라오스 등 동남아 불교국가에 대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기술 교육 및 전수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및 교류사업 전개와 함께 아태지역 내 다른 종교와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세계종교지도자포럼 실무위원회가 2011년 2월 구성되는 만큼 이같은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유네스코 아태지역 간부 150여 명이 한국을 찾아 한국불교문화에 대한 큰 호감을 갖고 돌아갔다”면서 “2011년 7월 이라나보코마 유네스코 사무총장에 한국에 방문하면 해인사나 불국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이라나보코마 사무총장님이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과 사회부장 해경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 김광조 유네스코 아태지역 본부장,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쌀바토레 미네오 유네스코 양자기금과 담당관 등이 배석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신륵사·동국미술인회

자비나눔 기금 전달

여주 신륵사와 동국미술인회가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다.

여주 신륵사(주지 세영스님)는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자비나눔 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신륵지역아동센터로 지정기탁 된다.

또한 동국불교미술인회도 지난 2일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동국불교미술인회가 제9회 동국불교미술인회를 통해 벌어들인 전사회 수익금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활동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나눔기금을 전달해 줘서 고맙다”면서 “동국불교미술인회전이 앞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의식 회장은 “작품전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전 사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대중들과 소통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은혜사 백양사 중회의원 재선거

중앙선관위...송광사 무투표 당선 결정

제10교구본사 은혜사와 고불총림 백양사의 제15대 중앙중회의원 선거가 재실시된다.

또한 조계총림 송광사 중앙중회의원으로 원경스님이 무투표 당선 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스님)는 지난 2일 제235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 233차 회의에서 중앙중회의원 선거 후보자 자격검정 결정을 받은 3명의 스님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모두 받아들였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10월28일 치른 중앙중회의원 선거가 무효가 된 은혜사와 백양사는 교구선관위의 선거 공고를 거쳐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또한 원경스님은 12월2일자로 당선증을 교부받았으며 당선일자는 10월28일이다.

지난 10월28일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은혜사와 백양사 중앙중회의원 가운데 이번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규위에 소청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스님이 있어 향후 진풍이 예상된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bulgyo.com

제36차 원로회의의 공 고

제36차 원로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원로회의의 의원 스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_ 불기2554(2010)년 12월 17일(금) 오후 2시
- 장 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
- 안 건
 - 원로회의의 의원 선출의 건
 - 기타사항
- 문의처 _ 원로회의 사무처 (02-2011-1868)

불기2554(2010)년 12월 8일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의 의장 종 산



2010 해인사 백련암 동계수련회 “4일간의 약속”

동계수련회 일정

회차	대상	기간	동참금
제1차	초등부	12월26일(일) ~ 12월29일(수)	6만원
제2차	중고등부	1월8일(토) ~ 1월11일(화)	7만원
제3차	일반부	1월13일(목) ~ 1월16일(일)	일반인(10만원) 대학생(8만원)

- ▷ 참가신청: 백련암 원주실 ☎ 055-932-7300 / fax 055-932-7219
- ▷ 동참금 계좌: 농협 / 843174-51-013873 / 예금주: 해인사 백련암
- ▷ 준비물: 운동화(or등산화), 세면도구, 수건, 여벌옷, 필기구, 따뜻한 점퍼
- ▷ 모이는 시간: 12:00 (11:00까지 오시면 점심공양 가능합니다)
- ▷ 이메일: www.lotus@hanmail.net
- ▷ 홈페이지: http://www.songchol.org
- ▷ 수련회비의 10%는 교법당 지원에 사용됩니다.

• 자원봉사자 신청은 원주실로 문의 바랍니다. • 참가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